

## 국내 최대 철새 천국은 ‘고창 동림저수지’

고창 동림저수지가 겨울 철새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고창 동림저수지는 42만1,000여 마리가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금강호는 3만9,000여 마리로 다섯 번째, 만경강 상류는 2만3,000여 마리로 아홉 번째로 집계되는 등 전북이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임을 입증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0곳의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이 기간에 발견한 철새는 194종 158만 9,835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최초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농경지와 저수지가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이다.

고창군 동림저수지는 가창오리 42만마리(99.7%)를 포함, 42만1341마리로 집계됐다. 이어 군산의 금강호(5위)에서 3만9,454마리, 만경강 중류(9위)에서 2만3,325마리가 발견돼 전국 상위 철새도래지 10곳에 포함됐다.

한편 전년 대비 철새 개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울산 태화강으로 66.8% 증가한 10만 1,420마리가 발견됐다. 반면 2001년 당시 약 17만 1,202마리로 정점을 기록했던 시화호는 올해 2만 6,186마리가, 2000년 7만 2,108마리를 기록했던 간월호도 올해 1만 4,371마리가 각각 발견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 ■상위 철새도래지 10곳

순위	장소	마리
1	동림저수지	42만 1,341
2	울산 태화강	10만 1,420
3	삼교호	5만 374
4	울산-구룡포 해안	4만 4,296
5	금강호	3만 9,454
6	시화호	2만 6,176
7	낙동강하구	2만 5,800
8	남양만	2만 5,431
9	만경강 중류	2만 3,325
10	남한강	2만 2,152